

"차라리 발견되지나 말지..." 강원도 양양 선림원터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동종(804년)은 '비운의 종'으로 통한다. 1948년 우연히 발견된 이 종은 상원사종과 성덕대왕신종(이상 8세기)에 이어 우리 나라에서 세번째로 오래 된 범종. 국보로 지정된 후 오대산 월정사로 옮겨졌지만 한국전쟁 중 월정사가 불발 때 녹아 버려 현재 3분의 1만 남아 있다.



◇52년만에 공개된 강원 양양 선림원터 통일신라 동종의 파편.

선림원터 동종의 파편이 52년만에 일반에 공개됐다. 10월 30일 문을 연 국립춘천박물관(관장 최웅현)에서는 이 종의 파편과 함께 실록도면을 바탕으로 당시 주조 방식인 밀랍주조기법으로 제작한 복제 종을 볼 수 있다.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애막골 1만400여 평 대지에 자리잡은 춘천박물관은 강원도에 처음 들어선 국립박물관이다. 94년 착공돼 8년만에 개관한 춘천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강원도에서 출토된 유물 5천4백여 점을 갖췄다. 661평의 전시실은 '선사·고대(삼국-통일신라)·고려·조선·근·현대' 등 4개의 상설 전시실과 2개의 기획 전시실로 나뉘어져 있다.

춘천박물관 소장 유물의 65%가 불교문화재일 정도로 강원도는 불교문화의 숨겨진 매카이다. 우리 나라 선종이 시작된 진전사터를 비롯해 선림원터, 흥천 절터, 법천사터, 최근 5백 나한상이 출토된 영월 청명사터 등 고려 조선시대까지도 곳곳에 대규모 사찰이 융성했다. 선림원터에 출토된 귀면 기와와 흥천 절터에서 나온 금동불상 4점(이상 7-8세기) 등에선 수도인 경주 못지 않게 화려한 불교문화가 꽃피었음을 엿볼 수 있다는 게 박물관 측의

춘천박물관 10월30일 개관
6전시실·5,400여점 소장

소장유물 65%가 불교문화재

선림원터 동종파편 52년만에 공개
최신 전시기법 도입·영상정보검색

설명이다.

통일신라 유물을 전시한 '고대실' 뿐만이 아니다. 일본에 유출됐다가 1960년대 반환된 고려초 '한송사터 석조보살좌상(국보 124호)', 금강산 그림 중 가장 오래 된 것으로 고려 태조 왕건이 금강산에서 담무갈 보살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담은 절을 한 나무판에 금가루로 그린 '담무갈보살현신도', 조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직전 금강산 월출봉에서 자신과 가족의 복을 비는 글



◇한송사터 석조보살좌상(국보 제124호).

귀를 적은 '이성계 발원사리구' (이상 고려실), 표면에 범어가 새겨진 유점사 청동 범종,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상여인 '청풍부원군 상여' (강원도 민속자료 120호), 이상 조선-근·현대실도 발길을 붙잡는다. 낙산사 담장을 복원해 놓은 야외 전시장도 볼거리.

전시 기법도 돋보여 선림원터 동종은 사람이 다가가면 종소리가 울리고, 담무갈보살현신도는 회전을 하며 앞면뿐 아니라 뒷면도 보여준다. 터치 스크린을 이용한 문화재 설명이나 영상실, 영상정보검색 시스템도 선보였다.

한편 춘천박물관은 개관을 기념해 조선시대 진경 산수화 대가들의 작품 200여 점을 선보이는 '우리 땅, 우리의 진경' 특별전을 기획 전시실에 서한 달간 연다. 30일까지 무료입장이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nia.com

봉정사 요사채 서까래 등 버려진 나무에 연꽃그림

귀일스님, 내년 보살화 소품전 계획

까래와 안동지역 고가(古家)에 사용된 목재를 주로 소나무로 직경 약 25cm미만의 원형으로 잘라 고운 사포로 20여분간 문지른 후 행화를 그림 때 사용하는 당채를 사용해 그림을 그린다. 귀일스님이 주로 그리는 것은 차파와 장식을 소품. 연꽃이 주된 소재지만 종류는 연일, 연희, 여러결의 연꽃 등을 형이상학적으로 디자인 한 보살화가 1백여 가지에 이를 정도로 모양과 채색이 다양하다.

2년전부터 나무에 그리기 시작했다는 귀일스

님은 "사람 불사에 사용된 재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수많은 신도들의 시주로 이루어진 소중한 정재"라며 "이런 중요성을 감안할 때 낡은 나무 서까래들이 개보수시 방치되다 불태워져 한중의 재로 남겨지는 것이 안타까워 시작하게 됐다"고 동기를 밝혔다. 또 스님은 "특히 서까래로 사용된 대부분의 소나무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갈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감과 향이 뛰어나 소품 재료로 쓰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설명한다.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 포이동 능인선원에서 전시회를 열었던 귀일스님은 내년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5백여점을 선보일 '보살화 소품전'을 계획하고 있다.

김주일기자



◇귀일스님의 연꽃 보살화 소품.

하얀 도화지는 너무 깨끗해 그림 그리기가 부담스러운 것일까. 옛 기와에 그림 그리는 귀일스님안동 봉정사 지조암이 이번엔 목재로서 구실이 다한 나무에 그림을 그려 화제다. 스님이 화재(爐材)로 선택한 나무는 안동 봉정사 요사채의 서

21일부터 세계불교미술전

해안스님, 화서각등 10점 출품

태국왕실에서 주최하고 세계불교청년우의회(WFBY)에서 주관한 '국제불교미술전'이 21일부터 25일까지 태국 방콕 플라자 아데니 갤러리에서 열린다.

한국,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7개국에서 3백여점이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에는 특히 해안스님(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이 반야심경 가리개와 화서각 가리개, 화서각 등 10점을 출품한다. 또 불화가 박경귀씨도 지정보살화와 1점을 내놓는다.

해안스님은 "세계 불교미술의 우호적인 교류를 위해 개최되는 만큼 일본에서는 불교미술가들이 1백명이나 참석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며 "특히 수익금 일부는 국제 템플스테이학교와 청소년 불교미술학교



◇해안스님 서각화 '해를지고 가는 아이들'

건립을 위해 사용되는 등 세계불교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의미있는 행사"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KBS 국악관현악단과의 협연에서 음성공양을 하고 있는 LMB싱어즈단원들.

LMB싱어즈 창단 4주년 찬불가·대중가요·팝송 등 다양 8일 건국대 새천년관서 기념공연

젊은 불자성악인들로 구성된 찬불가 중창단 LMB싱어즈대표 황영선가 8일 오후 7시30분 건국대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창단 4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을 갖는다. 찬반의 노래, 가을의 향연 등 주제로 꾸며지는 이번 공연에서는 길을 간다, 부처님은 이르시네, 님께로 가오니 등 6곡의 찬불가로 서막을 장식한다. 이어 2부 '사색의 향연'에서는 교성곡 대각국사 의현의 주제부분과 오페라타 아마타불종 '육바라밀'이 공연된다. 또 젊은 관객들을 위해서 3부에서는 '마법의 성'을 비롯해 '퍼펙트 러브', '투 나잇' 등 대중가요와 팝송도 선사한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찬불대중가요수 김무한씨와 클래식 연주자 황희정씨가

우정 출연할 예정이다.

황영선 대표는 "기초 찬불가는 다양한 음색을 표현할 수 있는 남녀혼성의 4부 편성이 많지 않아 찬불가 대중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남녀혼성 4부 중창단인 LMB싱어즈는 찬불가 악보를 4부 편성으로 새롭게 만들어 찬불가의 대중화와 교본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Lovers of Music, Beacons of light'의 약자로 '음악을 사랑하고 빛이 되는 사람들'이란 뜻의 LMB 싱어즈는 99년 3월 창단 이후 오페라타 '아미타불'을 비롯해 'KBS 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산사 음악회', '군법당 위문법회' 등 1백여회 이상의 무대에서 활발한 음성공양을 펼쳐왔다. 02523-3677

꽃꽂이의 표현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한번 풀이하면 의문을 품은 사람이라면 보림꽃예술회(회장 지연스님)가 9일부터 3일간 인공대 백상기념관에서 마련하는 꽃꽂이 전시회에 둘러보자.

'산사의 사계', '윤회', '전통등과 함께하는 꽃', '불교의식 장엄회' 등 다양한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전

유희 등 4가지 주제 꽃꽂이展

보림회, 코사지 만들기체험 기회도

꽃'와 '꽃 한송이 포장하는 법'을 주제로 한 꽃꽂이 체험 프로그램도 열려 꽃의 미학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02918-0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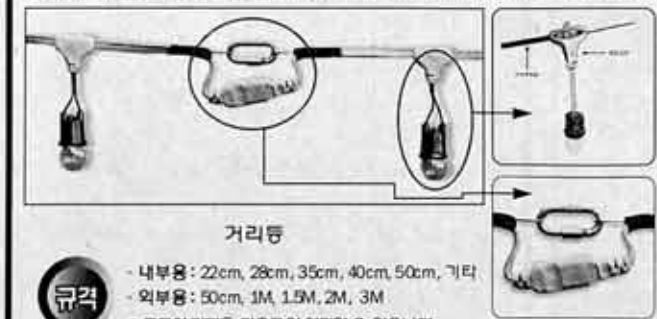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삼보전기

앞선 기술력으로 천년의 생명을 지킵니다

실용신안등록 제 0190397호
실용신안등록 제 0253853호
의 장 등 록 제 0255777호

등록제품!!



T형 일체식 케이블

- ◆견고성 - 전선과 소켓이 일체하므로 튼튼합니다.
- ◆편리성 - 연동고리가 있어 연동 설치가 용이합니다.
- ◆일체성 - 접촉 불량 없이 삽입됩니다.

외부용 [연결고리]

- ◆외부용은 전선과 와이어를 함께 압축하여 별도의 와이어나 로프가 필요없습니다. 연결고리가 부착되어 설치와 철거가 용이하다.

생각하는 기업

삼보전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499-4
TEL. (031)972-5056
H·P. 011-327-5056

삼보전기만의 축적된 기술로 안전하게 제작·시공 및 확실한 A/S를 해 드리겠습니다.

승복 법복 인네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항상 처음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 | | |
|-------------------|---|
| 1. 모직혼방 물세탁 가능 | 적삼, 바지 : ₩140,000 동방, 바지 : ₩160,000
두루막 : ₩140,000 |
| 2. 면 100% 조각무늬 무직 | 적삼, 바지 : ₩130,000 동방, 바지 : ₩150,000
두루막 : ₩130,000 |
| 3. 누비 (면순 100%) | 적삼, 바지 : ₩220,000 동방, 바지 : ₩240,000
두루막 : ₩200,000 |
| 4. 누비 (혼방) | 적삼, 바지 : ₩170,000 동방, 바지 : ₩190,000
두루막 : ₩170,000 |
| 5. 법복 (회색, 밤색) | 조끼, 바지 : ₩60,000 ~ ₩65,000 |
| 6. 장삼 (모직) | ₩200,000 ~ ₩250,000 |

※ 가사 주문받습니다 ※

● 찾아오시는길 : 대구 지아질 중앙로역 3번 출구 앞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섬유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대리점모집]